



아파트와 아파트에서 가끔 싸구리가 온다. 예전엔 싸구리 소리를 아름다운 봄의 새소리라만 들었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그 소리가 마치 후회의 소리, 질곡의 소리로 들리기도 한다. 싸구리는 남의 동자애다 물레 앞을 낚아놓고 기르지도 않는다. 동자 근처 숲속에서 옛보다 아무도 없으면, 제 새끼만을 살리기 위해 남의 새끼를 동자 박으로 떨어뜨려 버린다. 그런 것도 모르고 동자의 다른 어미새는 싸구리 새끼를 자기 새끼로 알고 온갖 정성을 다해 키운다. 사람살이로 말하자면 원수의 새끼를 키운 셈이다.
무슨 까닭으로 그랬는지 그 속을 알수는 없지만 아무튼 짐승이라 할지라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언론협배인
일일것이다.
제 몸을 담당하게 드러내지도 못하고 숨어서만 우는 배곡새, ‘배곡, 배곡’ 하는 소리가 때때로 ‘비겁, 비겁’으로 들린다. 비겁한 자신을 늦게야 깨닫고 질책하고 한탄하는 소리일까. 아니면 나를 향해 너는 어리라고 질책하는 소리일까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되는 새도 있다. 무소새는 평생 동지를 갖지않고 살아가는 무소유의 새다.



김 양 희

‘잘못지킨 어미의 자리’

그래도 새중에서 가장 모성애가 강한 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책임감은 강한 새이면서 자식사랑을 무소유로 가르치는 현명한 새인것이다. 무소새를 생각할 때마다 나 자신이 몹시 부끄러워진다.
무소새만도 못한 내가 사람인척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때문이다. 사람의 어미라고 다 어미이며, 사람의 어미라고 다 새의 어미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다.
과연 사람중의 누가 무소새의 무소유를 비웃을 수 있으며 과연 사람중의 누가 배곡새의 소행을 비난할 수 있을까.
싸구리의 탐성과 무소새의 무소유가, 싸구리의 무책임과 무소새의 모성애가 사람인 나를 다시한번 돌아보게 한다. 나는 내자리를 얼마만큼 잘 지켰는가, 잘 지켰노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는 나는 싸구리처럼 숨어서 울 염지도 없다.
내가 진정으로 참회하고 참회할 것은 자식으로 어미로 잘못지킨 내 자리이다.

(사인)

구독료납부 은행지모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구독·광고 문의 (02)737-8881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은누리에 자비를”
불기 2541년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이 1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우중에도 불구하고 동참한 3천여명의 불자들은 아기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지혜의 자비의 등불을 밝혔다. (관련기사 3·18·20면)
<사진=고영배 기자>

“종교간 벽 허물자”

초파일 맞아 분위기 확산...언론·방송 등 앞장

부처님오신날을 기해 종교간의 벽 허물기 분위기가 잔잔하게 번지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방송 경화방송, 중앙일보 등 방송언론이 부처님오신날 특별대담을 벌이고, 한국신학대학은 불족현수막을 내걸었으며, 가톨릭로마교황청이 3년전부터 불족에서 지를 발표하는 등 종교간의 화

합의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종교간의 화합무드는 각 종교간 사회문제 해결에 공동대처하는 등 일차적인 움직임을 비롯해 90년 불교방송이 성탄특집방송을 내건 것과 지난해 화계사가 성탄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내건 것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 로마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의장 프란시스 아린제 추기경)는 1일 ‘부처님오신날에 불자들에게 보내는 경축메시지’를 내고 ‘이미 맺고 있는 우정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우정을 맺자’면서 ‘자비와 용서의 사랑이 되어 세계평화를 위해 나서자’고 말했다.
한국종교인경화회의(KCRP)는 타종교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중로성당에서 ‘불교의 이해’ 강좌를 개설했다. 또 ‘기독교의 이해’ 강좌를 비롯 천주교, 유교, 원불교, 한교 등 6대종교 강좌도 개설할 방침이다.

14일 불교방송 생방송 ‘살며 생각하며(24:00~02:00)’ 진행자 덕신스님과 전화로 연결돼 출연한 최성우 신부(경화방송 ‘신부님 신부님 우리신부님’ 진행자)는 “이웃종교인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한다”며 “성불하

세요”라고 인사했다.
이처럼 종교가 정신문화를 선도해야 할 주제라는 점에서 금년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타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화해무드는 향후 종교간의 유대강화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김중근 기자)

‘천상천하유아독존’ 월하스님 방장법어

월하스님(조계종 종정)은 8일 불기 2541년 부처님오신날 방장 봉축법어를 발표했다. 법어는 ‘천상천하유아독존’.
한편 스님은 14일 불도사 봉축 법요식에서 부방장스님을 통해 “본래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고 법문했다.

승가대 군승선발교 지정 요청

조계종, 국방부에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8일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중앙승가대학교를 군승사관후보생 선발학교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포교원의 이같은 요청은 중앙승가대학교가 4년제 정규대학 승격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 인사복지국 관계자는 실사를 거쳐 상반기중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지정될 경우 대상자는 올해 입학한 1학년부대로 알려졌다. 중앙승가

태고종 쌀 1백가마 복돋기 추진위에 전달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15일 총무원에서 복돋기추진위원회(이하 불교추진위)에 쌀 1백가마를 전달했다. 인곡 총무원장은 이날 총무원을 방문한 불교추진위 상임

21일 전국사암 하안거

정축년 하안거 결계법요식이 21일(음 4월 15일) 열려 조계사가 영축 덕승 고불총림을 비롯 전국 사암에서 스님들이 일제히 용양정전에 들어갔다.
본사 사령
승 편집국 취재1부 기자 김주일·김정은
승 편집국 취재2부 기자 윤기서·김지연
승 경영관리국 영검부 사원 김종일
(1997년 5월 15일자)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5월 문학인물-초익스님
신록의 계절 5월의 문화인물은 한국차문화를 증진시킨 초익스님입니다. 초익스님은 언담스님의 선지(禪旨)를 이은 대승사일본 아니라 조선 후기 문화발전엔 큰 역할을 한 대표적 문인입니다. 초익스님은 대흥사 일지암에서 40여년간 머물며 ‘선다임기(禪茶一味)’ 사상을 꽃피웠습니다. 스님은 추사 김정희, 다산 정약용 등 당대 석학들과 긴밀하게 교류했고 따라서 일지암은 불교와 유학이 자연스럽게 사상·문화적으로 접촉·발흥된 산실로 유명합니다. 대흥사는 서산 사명 처영 스님 등 고승 대덕들의 부도와 비가 무려 80기나 되고 13 대종사와 13 대강사를 배출해 조선 후기 불교의 중흥을 이룬 대가입니다. 25일은 제17회 ‘차(茶)의 날’입니다. 차의 날에 서산·사명대사와 초익선사를 추모하며 차향 가득한 해나으로 떠나보시죠.
禪茶 그리고 한국인의 풍류
5월 테마여행 - 대흥사 · 일지암
■ 참가 안내
○출발: 5월 24일(토) 저녁10시 · 조계사 앞
○인원: 여연스님(일지암 주지) ○회비: 4만원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주)현대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일약물



연복사 범종 언제 올리려나 9면 석왕사 외국인 노동자 한마당 19면 절음식 이렇게 만드세요 14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개인소장용으로 제작 · 보급되는 반가사유상!
우리문화재 사랑의 시작입니다.

■ 작가: 이진형 (불교조각원장)
- 30여년간 불교조각에 전념해온 지정문화재 조각가인 이진형 원장이 심혈을 기울여 축조한 작품으로 고전미와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 학적
- 81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총무원장상)
- 86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특별상)
- 89~95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원 4회
- 제1회 불교조각 개인전 개최 (1995년)
-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추천작가
현재 전통문화재 기증인 협회 이사

규격(폭×높이)	형태	골동품형(左), 코팅형(右)
11cm×26.5cm		230,000원
16cm×40.5cm		350,000원

■ 주문시 오동나무 박스로 원전포장하여 판매 및 발송해 드립니다.
■ 본 제품은 크기·형태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 개금을 원하시는 경우 개금비가 추가됩니다.

■ 지역 구입 문의
안산 (0345)411-4580 목포 (0631)281-2534 부산 (051)634-5114 광주 (062)375-9986
속초 (0392)636-3923 인천 (032)461-3461 강릉 (0391)651-9317 영주 (0572)34-3429
대구 (053)769-8008 대전 (042)625-1080 김포 (0416)55-0020
마산·창원 (0551)84-0735 진주 (0591)747-0106

● 기획·보급: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32-1522, 737-8881 팩스: (02)737-0697 ●

